E. H. Gombrich 관점을 통해 고찰한 관념의 재현으로서의
Hussein Chalayan 작품 연구

윤 지 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Works of Hussein Chalayan as a Representation of Idea from the Perspective of E. H. Gombrich

Jiyoung Yun†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works of Hussein Chalayan that is an expression of his idea and abstract concepts such as culture, history, time, space, nature, and humanity. The perspective of E. H. Gombrich is studied to understand the works of Chalayan who is the one of representative fashion designers in the present age. The 'schema and correction' process of E. H. Gombrich provides a suitable interpretation frame that considers the variety of works of art and the deconstruction of genre in the after 20th century. Hussein Chalayan attempts to combine clothes with other territories to show the spirit as materiality. He expresses the clothes that speaks the form of nature, symbolizes the combination of culture, visualizes time and space, and investigates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Hussein Chalayan poses an endless question about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He has put a question about the relationship of the human being and time, space, history, and nature. His trial to visualize the metaphysical conception of ‘ego’ and ‘self’ through his works makes him the representative designer of the 21st century.

Key words: E. H. Gombrich, Hussein Chalayan, In Betweenness, Nomad, Existentialism; 께브리치, 후세인 차라이안, 중간성, 노모드, 존재주의

I. 서 론

예술가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시대 상황, 사회적·문화적 배경 및 예술사조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예술가 각자는 그들의 독특한 작품들을 통해 관조자와 의사소통한다. 같은 시대와 같은 문화 속의 예술가들이라도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창작의 결과물들은 각기 다른 형태와 의미를 가지며 이는 각 예술가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여 자신만의 코드(code)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창작자의 예술의지로 이는 외부의 모든 조건들을 조절하여 새로운 질서로 재정비하고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E. H. Gombrich(1909~2001)는 이러한 예술가의 도식 인식과 수정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술 언어에 주목했으며 예술가는 이 자신의 언어를 통해 새롭게 대상을 창조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가들은 같은 대상을 재현하는데

†Corresponding author
E-mail: garnet7124@hanmail.net
있어서도 도식의 분절화와 의미 전이에 의해 다른 결
과물을 창조해 냈다. 더불어 이러한 관념적 대상을 바
라보는 관조자는 창작자가 사용한 예술언어를 읽어
낼 수 있는 코드를 배워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만
의 심각 자세를 가지고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는 시각적으로 미니멀 폭을 창조하고 있
지만 그 안에 부단한 사상과 철학을 담아내고 있는 패
션의 혁명가인 Hussein Chalayan(1970-)'의 작품(Quinn, 
2002)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는 논리적 관념을 형상화
하는 청신석 영역으로의 패션 작품을 제시하고 있으
며 이를 건축(architecture), 공학(engineering), 수학(math
ematics), 그리고 철학(philosophy)의 몇 가지에 위치시키
고 있다. Chalayan은 인간의 관념이라는 창조적이고 지
적인 부분으로 패션 매체를 전개(Prevord, 2003)시키고
있는 혁신적인 디자이너이다. 이와 같은 그의 작품을 통
해 패션 디자이너의 대상에 대한 인식 방식과 이를 자신
의 내적 의지에 의해 수용하고 수정하는 지속적이고 반
복적인 과정에 의해 창작된 관념의 재현으로서의 옳
라는 대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Chalayan의 작품
을 읽으며는 관조자의 심각 자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작품을 통해 의사소통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Chalayan은 1993년 The Tangent Flows 컬렉션을 시
작으로 매 시즌 패션 디자인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컬
렉션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들에게 패션에 대
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게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1999년 Echoform 컬렉션에서부터 선보이고 있는 ‘Art
Projects’를 통해서는 패션과 그 전역의 결합을 시도
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alayan의 작품이 시
각적인 재현의 단계를 넘어서-between 컬렉션(1998 S/S
)을 시작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 기술과의 결합을 제
시하고 있는 Airborne 컬렉션(2007 A/W)까지의 작품
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Chalayan은 패션과 그 전역과의 결합을 통해 패션
이라는 분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의 디자인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과 개념의 형상화
라는 점에서 기존의 관념을 뒤바는 디자인을 시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분야를 단순히 옮기거나
만드는 작업이 아닌 인간의 관념을 표현하는 분야로
인식하는 Chalayan의 작품 고찰을 통해 패션을 하나
의 예술대상으로 바라보는 관념적인 사고와 열린 시
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E. H. Gombrich의 도식과 수정

20세기 이후 미술에서 재현은 붕괴되었으며 그 어떤
예술가도 그가 보는 대로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E. H. Gombrich의 주장이다. 그는 도상해석학 이
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E. Panofsky(1892~1968)의 이
론을 계승하면서도 20세기 이후 예술의 특성을 고려하
여 주어진 알레고리 안에서의 해석을 벗어난 상대주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E. H. Gombrich는 예술 작품의
도상은 예술가의 도식(schema)과 수정(correction)의 과
정에 의한 코드와 과정과 이에 대한 관조자 해석의 상
호 소통 과정을 요구하는 암호문(cryptograms)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암호문’은
예술이 전달하는 어떤 신호 체계이며 이는 예술을 통해
소통되고 있는 일종의 예술언어로 ‘예술언어’라는 말은
영성한 은유(metaphor) 이상의 어떤 것이다. 눈에 보이
는 세계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때에조차 도식의 잘 발
달된 체계를 필요로 하며(Gombrich, 2000) 이는 ‘도상
해석학(Iconology)’ 또는 ‘이미지의 언어학(linguistics of
the image)’의 기초적 전체이다(Mitchell, 1987). 이와 같
이 예술언어를 통해 창작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도식을
해석하고 세상과 소통한다.

E. H. Gombrich는 회화적 재현이란 관조자가 보는
것을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화된 도식이
관계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도식은 가시적인 외연에
대한 ‘맞치기(matching)’가 일어날 수 있기 전의 그 자
신만의 언어로 조직되어야 하는 인습적 형태의 어
휘로 주장한다(Mitchell, 1987). 재현을 통한 회화적
현안은 예술가와 보는 사람간의 복잡한 각각심리학적
활동을 통해 문화적 관습과 각각 경험의 상호작용 속
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인간의 각각은 항상 의미에 대
한 반응과 그것이 불가능함을 가리키는 기대 또는 투사에 의
한 분류 행위를 포함하는 농동적 과정인 것이다.

E. H. Gombrich의 환영(Illusion) 이론은 어떤 예술가
도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그릴 수 없으며 또한 관술들
을 완전히 저버릴 수 없다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것은 새로운 요구들의 압력 하에서 이미지 제작의 관습
적인 도식들을 접점적으로 수정해 나갈으므로써 얻어진
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각각 과
정이 순수한 감각 인상들의 수동적인 기록이 아니라, 특
정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분류하고 선택해 나가는 농동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식과 수정의 레들은 그림
제작과 그림 독해에 대한 E. H. Gombrich 설명의 기초
가 된다(오연경, 2001). 모든 미술의 기원은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모든 미술은 ‘관념적’이며 그들의 양식에 의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Gombrich, 2000).


E. H. Gombrich가 에로 들고 있는 <사진 1>의 경우, 이 그림을 토대로 볼 수도 있고, 오리로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실질적으로 이 형상은 어느 쪽이도 가깝게 닿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형상은 어떤 미묘한 방법으로 지적으로 변형(transform)하여 오리의 뒤리가 토끼의 귀가 되기도 하고, 무시될 수 있을 정도 하나가 토끼의 입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찰자는 각자의 싱크를 가지 고 대상을 지각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싱크 반응의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사진 2>의 Paul Cézanne(1839-1906)의 작품과 이와 같은 풍경을 사전으로 막은 <사진 3>과 비교한 데 통해 화가 내면에 내재해 있는 도식과 수정의 과정이 어떻게 작품 창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Gombrich, 2000). 이는 대상에 대한 창작가의 도식 인식과 이에 대한 수정의 상호 보완과 반복의 과정이 서로 다른 결과물들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사의 기존의 도식들을 단지 적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알아볼 수없을 만한 분절화 시키고 교정하는 실험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도식들은 수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되며, 예술가는 그것에 비추어 자신의 시각적 경험의 일탈들을 측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존의 도식이 자신의 시각적 경험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때, 예술가는 자신의 모티브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들을 시도해 봉으로써 이전의 화화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잘 특정 경험들에 들어맞는 것으로 발현한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예술가의 그런 제작 과정은 도식과 수정의 런럼, 다시 말해 만들기와 맞춤보기를 통해 진행된다. 실제로 화가는 우
리로 하여금 기대들을 투사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상상적 세계를 구축하도록 만든다. 그럴 때 적선은 관습적인 도식적 형태를 만들어낸 후에, 그것을 지금 경험에 비추어 끌어맞이 수정하면서 제원 대상에 맞추어 나갈으므로 적자적으로 등가물을 창출해내는 도식과 수정의 리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 독해는 예술가의 의도나 제원 방식에 대한 적절한 실적 자세를 바탕으로 해석을 위한 도식을 세우고, 그것을 그림 내의 단서들의 일관성에 비추어 테스트하고 수정함으로써 주어진 단서들을 환영으로 변형시키는 도식과 수정의 리듬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E. H. Gombrich는 회화적 환경을 예술가와 관조자의 협력 관계 속에서 시행착오 과정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본다(오영근, 2001).

III. Hussein Chalayan 작품 분석

앞에서 고찰한 Gombrich의 이론을 토대로 Hussein Chalayan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Chalayan의 작품은 단순히 착각을 위한 오기 아니라 관념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Chalayan은 도식의 수정을 통한 의미의 분절화와 전이 과정을 거쳐 새로운 도식을 창출 통해 표현하고 있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전두적인 패션 디자이너이다. 본 장에서는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Chalayan 작품에 대한 코드화와 해독을 하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식의 단계’와 Chalayan이 자신의 작품의 의미를 분절화시키고 의미를 전이시켜 새로운 도식을 고안해내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수정의 단계’의 시각을 통해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Chalayan의 컬렉션을 크게 문화의 재현, 시·공간의 재현, 자연 관리의 재현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의 재현으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문화의 재현


Medea, AF Sandys 컬렉션(2002 S/S)을 통해 Chalayan은 과거 패션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의 작품과 휘어져 놓고 있다. 1960년대 드레스가 중세 드레스의 형태적
과학의 드라마는 왜이며, 벽타린 사태의 소르셋(corset)이 현대적 저지 벨트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1930년대 드레스는 에드워디언 형태의 드레스로 제시되고 있다(사진 6). 또한 과거의 혼란은 그가 염색한 원단 혹은 땅에 묻었던 원단과 결합하여 혼재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해체된 옷은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 그것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Twist, 2005).

2. 시간과 공간의 재현

Geotropics 컬렉션(1999 S/S)에서 모델은 목에 피트되는 누드 론의 앞과 편즈를 착용하고 동에는 구조물을 달고 등장한다(사진 7). 이는 자동차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착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작품이다. 또한 비행기를 형상화한 'Motorized airplane dress' 역시 시간과 공간이동의 개념을 시각화하고 있다. 더불어 물형(morphing)의 방법을 통해 레이어드 드레스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사진 8).


3. 자연 원리의 재현


Mapreading 컬렉션(2001 A/W)은 습건, 계절 그리고 해(午)의 순환적인 연속으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연 순환의 원리와 인간 삶의 묘음음을 시각화하고 있다. 여기서도 Chalayan은 불평의 기법을 사용하여 마치 영 화를 보는 듯, 창조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서서히 이동한다. 특히 그가 총업 작품 제안소에서 발표했던 퀸기루를 물려받아 둔 후 몇 주 후 패널 드레스가 마 지막에 등장하면서 결국은 부패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다시 부활하는 자연의 순리를 표현하고 있다(사진 14).

2006년 Art Projects 작품인 ‘Compassion Fatigue’는 사회, 즉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들이 또 다른 하 나의 새로운 자연적 환경으로 변연하여 존재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사진 15). 인간이 조성하는 사회가 인간이 존재하는 하나의 자연으로 변연되는 과정을 에어컨 등 사례가 자연의 공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인 공의 샌드 자연 속 물의 환경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작
용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4.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의 재현


Hussein Chalayan 시기별 클렉션에 따른 작품 창작 의도와 작품 도상의 의미를 <표 1>에 정리하여 계
<표 1> Hussein Chalayan 시기별 컬렉션

<table>
<thead>
<tr>
<th>시기</th>
<th>컬렉션</th>
<th>주제</th>
</tr>
</thead>
<tbody>
<tr>
<td>1998 S/S</td>
<td>Multiculturalism</td>
<td>• 이량야적 논의&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법칙&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1998 A/W</td>
<td>Panoramic, 1998 A/W</td>
<td>•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1999 S/S</td>
<td>Geotropics, 1999 A/W</td>
<td>•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1999 A/W</td>
<td>Echoform, 1999 A/W</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0 S/S</td>
<td>Before Minus Now, 2000 S/S</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1 S/S</td>
<td>Afterwords, 2000 A/W</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1 A/W</td>
<td>Ventrilog, 2001 S/S</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2 S/S</td>
<td>Mapreading, 2001 A/W</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2 A/W</td>
<td>Medea, A.P. Sandys, 2002 S/S</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2 A/W</td>
<td>Ambimorphous, 2002 A/W</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3 S/S</td>
<td>Manifest Destiny, 2003 S/S</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3 A/W</td>
<td>Kinship Journeys, 2003 A/W</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4 S/S</td>
<td>Temporal Meditations, 2004 S/S</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4 A/W</td>
<td>Anthropology of Solitude, 2004 A/W</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5 S/S</td>
<td>Blindscape, 2005 S/S</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시간의 개념&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5 A/W</td>
<td>Genomics, 2005 A/W</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6 S/S</td>
<td>Heliotropics, 2006 S/S</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6 A/W</td>
<td>Repose, 2006 A/W</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7 S/S</td>
<td>One Hundred and Eleven, 2007 S/S</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r>
<td>2007 A/W</td>
<td>Airborne, 2007 A/W</td>
<td>•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변형의 과정을 제시&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lt;br&gt;• 공간과 인간의 관계&lt;br&gt;• 기체와 공간의 개념&lt;br&gt;• 인간의 영향의 시각화&lt;br&gt;• 인간의 존재론</td>
</tr>
</tbody>
</table>

- 1135 -
시하였다. Chalayan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문화, 시간과 공간, 자연의 원리, 그리고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재현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Chalayan은 논리적 관념을 형상화하는 정신적 영역으로서의 패션 작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를 패션에서의 혁명가로서 일관하는 이유이다.

IV. 관념의 재현으로서의 Hussein Chalayan 작품의 상징성

1. 다문화주의를 통한 정체성의 고찰


Chalayan의 작품은 ‘in betweenness’ 공간의 개념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동양과 서양의 두 문화공간을 넘나들며 자신의 존재를 다른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는 터키의 키르포스(Cyprus)에서 출생하고 런던에서 교육을 받은 Chalayan의 태생과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슬람 문화와 서양 문화의 상극의 배움을 얻은 여성이라는 서양 정체성과 현대 패션을 대표하는 공간에 새롭게 자신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 공간’을 창조해내고 있다. 또한 과거 역사 속 복식은 자신의 디자인과 함께 위치시킴으로써 과거의 문화와 시간의 현대라는 시공간으로 가자와 결합시켜 자신의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옳을 통해 만들어진 이질적인 공간 속에 위치시킨다. 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과 새롭게 창조된 사이 공간을 패션과 타 장르의 결합을 통해 비주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2003년 Art Projects인 ‘Temporal Meditations’는 키르포스 고향에 대한 기억과 현재 삶의 용합을 필름 작품으로 형상화한다(사진 19). 이와 같이 Chalayan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자신의 실존과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2. 유동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


Gilles Lipovetsky(1944~)는 Deleuze의 노모드 개념을 패션과 연계시켜 분석하고 있는데 그는 패션은 하나의 사회변화의 특성형태이며 패션은 주도하는 사람

Chalayan이 창조하고 있는 노드드의 공간적 유동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배달되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비밀이 가는 장조적 행위(김남정, 2006)를 실천하는 인간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역동적인 가치 창조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진 유동성의 특성이다. 현대인들은 영역과 영역 사이를 이동하면서 특정한 가치와 방식에 정착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적이며 사이클이 무한한 가능성이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며, 작품적이고 향상 새로운물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작동하게 한다.

3. 무(無)의 존재로 실존하는 인간

M. Heidegger는 인간의 존재의 독특함을 실존에서 찾아낸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들이 존재하는 것과 다르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삶의 의미를 묻는 존재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무엇'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을 속에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M. Heidegger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이 내재적이라고 하여 '주기' 자신의 의미나 창조에 의해 자신의 거기에(On) 오게 된 것이 아닌, 무한한 존재라는 것은, 그리고 언제가 끝날 수밖에 없 는 삶이라는 길 위에 놓여 있는 하, 현실적인으로는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가능으로 규정되는 유한한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유한성 자체가 바로 인간 존재의 가능성을 품는 존재이다. 인간 현존체(Existentialism)는 자신의 스스로 존재를 이끌 수 있는 존재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은 스스로 존재의 존재들을 수용하고 설계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품는 존재이다. 인간 현존체(Da-sein)의 본질은 바로 실존이며 이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Chalayan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실존하는 인간과 그 인간이 존재하는 자연,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관계를 관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가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작품은 철거가 묻은 옷을 말에 묻어 섰던 후 크녕 작품으로 이는 인간에게 테크티된 존재가 결국은 무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상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Chalayan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 대상들과 테크놀로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또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서의 공간을 만들어내며 이를 다시 인간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모순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Chalayan은 One Hundred and Eleven 웰렉스(2007 S/S)를 통해 테크놀로지의 힘에 의해 작동하는 옷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모자가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인간은 나체로 남게 된다(사진 21). 최신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여야하는 세션스를 통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아름다운 인간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리아나다. 더불어 이는 기존의 엔지니어 인간을 두(無)의 상태로 되돌려 보낸다. 이것은 Chalayan이 실존하고자 하는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V. 결론


Chalayan은 관념의 도식을 코드화시켜 옷이라는 대상에 투영함으로써 의미를 분절화시키고 의미를 전산시키고 있다. 그가 만들어낸 이 애호문을 통해 Chalayan과 관조자는 의사소통을 한다. Chalayan은 그만의 예술이며, 옷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결합하고 해체시키고 있으며 괴거의 역사 속 복식의 문화를 현대의 시대 안에 맞추고 있다. 그가 만들어낸 후의 제3의 공간은 현대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해내는 공간이며 자아를 구축하는 다양한 사고와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그는 현대 패션의 특성인 유동성의 개념을 옷으로 거쳐 건강한 공간과 공감을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옷은 자동차, 비행기와 결합하고 테크놀로지에 의해 움직인다. 더불어 옷은 하나의 건축적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수용하고 시각화시킨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유동성뿐만 아니라 장르 간의 유동성까지도 시도하고 있는 Chalayan의 예술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Chalayan은 좀 더 근본적인 분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자연, 그리고 나아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은 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삶의 의미를 묻고 있으며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는 그의 작품 세계를 포괄하는 관념으로 인간의 원죄,
학문, 고독, 소외, 희망, 구원과 같은 현대상학적인 개념을 작품과 결합시켜 표출화시킴으로써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작품의 코드를 잡아내는 판조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Chalayan과 의사소통을 원하는 판조자들은 그의 예술언어를 잡아내야 하며 그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그의 예술의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대상의 형성과 작업이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실존을 담아내는 작업이다. 그는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다면적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움직여내며 이를 통해 판조자들은 미적 항유를 넘어서 창작가에 대한 창작물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고와 고통을 작작한다. Chalayan은 21세기 패션 디자인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의 패션을 바라보는 열린 사고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